

Studio DAC:

아트 클래스 - 토크

경계: 디아스포라

일시

2026. 5. 22(금) 오후 7:30-9:00

장소

Studio DAC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디아스포라로 쓰여지기

경계의 안과 밖에서 쓰여지고, 쓰는 삶

한정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정말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그럼 무엇을 잃으셨는지 기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릴 땐 소중하게 다루었던 애착 인형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생긴 이후에는 혼자 먹던 과자를 나눠야 할 때도 있었을 거고요. 이후엔 잃어버리는 그 '무언가'의 규모가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가령 책가방 속 용돈이었을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누군가'가 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친구든, 가족이든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잃고 나서의 느낌은 어땠나요? 다른 것보다 그 무언가를 잃기 전의 나와 잃은 후의 내가 다르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린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결혼으로 인해 아주 오랜 시간동안 살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던 서울을 떠나 교토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제 남편은 일본인이고 그러니까 제게 가족이 있는 한 이전의 서울 생활을 할 순 없습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교토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니까, 이전처럼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용량의 음식을 사서 서울에 쟁여둘 수 없고, 한 달 뒤 오픈하는 공연의 티켓을 일찍 예매한다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예약할 수도 없어요. 지극히 일상적이어서 잃기 전엔 깨닫지도 못한 것들이지요. 언제쯤 그런 삶이 있는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나라에서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야 하는 삶이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이겠죠.

두산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2026
3.-6.

두산인문극장
두산아트스쿨: 미술
Studio DAC: 아트 클래스
Studio DAC POST

저처럼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경 너머의 삶을 잃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한 규율에서 벗어난 사람들일 수도, 제도 밖에서만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때도 있어요. 장애 때문에 '비장애'의 세상에서 혹독한 차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저처럼 한국 국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그렇게 경계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써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경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영영 잃어버린 채로 바깥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요.

오늘은 이렇게 '영영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쓰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영영 잃어버리셨나요? 혹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 밖으로 몰아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실과 경계에 대해, 그리고 그 경계 안과 밖을 모두 경험한 순간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정현(소설가)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을 시작,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중편소설 『마고』, 단편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 『코코와 교지』, 에세이집 『환승 인간』 등을 집필했다.

2019년 오늘의 작가상, 2020년 젊은 작가상, 퀴어문학상, 김유정문학상, 2021년 부마항쟁문학상, 2025년 5.18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일본과 미국, 한국의 역사적 연관성 안에서 주로 여성과 퀴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그리는데 천착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

◇ 디아스포라를 다룬 작품들

1. 압둘라자크 구르나 『낙원』, 문학동네, 2022
2.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알에이치코리아, 2015
3. Hala Alyan 『Salt House』

두산아트센터 교육 뉴스레터

Studio DAC POST



지난 뉴스레터 보기,
무료 구독하기